

## 류현진 대 그레인키, 흥미진진 선발투수 대결 5위

등록 2019.03.28 12:26:02



【피닉스=AP/뉴스시스】LA 다저스의 류현진이 21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경기하고 있다.류현진은 5이닝 4실점하며 시범경기 등판을 마쳤고 팀은 5-11로 역전패했다. 2019.03.22.

【서울=뉴스시스】김주희 기자 = LA 다저스의 류현진(32)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잭 그레인키(36)의 개막전 선발 맞대결을 현지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MLB닷컴은 27일(한국시간) 개막전 선발 매치업을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했다.

류현진과 그레인키의 매치업은 5위에 올랐다. LA 다저스와 애리조나는 2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류현진과 그레인키가 나란히 선발로 출격한다.

MLB닷컴은 "그레인키가 옛 동료 클레이턴 커쇼나 워커 불러와 만났다면 조금 더 흥미로웠을 것"이라면서도 "류현진은 충분히 자신의 몫을 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7년 만에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서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인 투수로는 박찬호(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 이후 17년 만이다.

맞대결 상대는 '옛 동료'다. 류현진과 그레인키는 다저스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류현진은 2013년 LA 다저스에서 빅리그 도전을 시작했다. 그레인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저스에서 뛰었다.

그레인키가 애리조나로 이적한 뒤 둘은 두 차례 선발 맞대결을 벌였다. 2017년 9월6일 첫 만남에서 류현진은 6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그레인키는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2018년 9월1일에는 류현진이 7이닝 2실점했고, 그레인키도 7⅓이닝 3실

점을 했다.

한편 가장 눈에 띄는 선발 매치 1위에는 뉴욕 메츠의 제이콥 디그롬과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슈어저의 맞대결이 선정됐다. 2위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블레이크 스넬(탬파베이 레이스), 3위 코리 클루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호세 베리오스(미네소타 트윈스), 4위는 마일스 미콜러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줄리스 샤신(밀워키 브루어스)이다.

juhee@newsis.com



잭 그레인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